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6:16~19)

작품은 작가 생각의 결과물이다

“불황이라 안 돼.”, 그 사람은 분명히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이라 못 고쳐.”,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이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제가 좀 지나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하셨습니다.

가시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를 딸 수 있나요? ‘말이 씨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요? 불황의 씨를 뿌렸으니 불황이 되어야 맞고, 불가능의 씨를 뿌렸으니 불가능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불치병이라 뿌렸으니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자 중에서 10명은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나 깨나 말조심해야 하는 이유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저니와 마음이 꾀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잠13:2). 복도, 화도 입으로 자초한다는 말입니다.

누에 아시죠? 누에가 자기 입에서 뿜어내는 실로 자기 몸을 칭칭 감지 않습니다까? 말이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내 삶을 칭칭 동여맨다는 겁니다(약3:2).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내 삶을 감싸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수들이 자기들이 부른 노래 가사대로 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노래도 말인지라 계속 불러대니 가사가 그들을 칭칭 감아 그런 겁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그런데 말이란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 곱게 나오니까? 나발이 다윗에 대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삼상25:10~11)라고 말한 것은, 그날 나발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평소 그가 다윗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낀 옥합에 대해,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요12:5)고 말한 것은 그 생각 속에 탐심이 가득했기에 그리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12:34~35)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렘 요, 생

각 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고치려면 근원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도 못 맺고 시들시들할 때 가지치기하고, 거름을 줘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본인 뿌리를 살려야 합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거름 주고, 물 주면 더 썩을 뿐이지요.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나무가 삽니다. 인생이 시들시들하고, 열매가 없다면 뿌리인 생각을 살려야 합니다. ‘안 된다’, ‘못 한다’, ‘죽을 거 같다’... 이런 말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니 그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생각이란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 검진결과를 듣는데,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고령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순간 ‘아~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곧 ‘귀신아, 가라!’ 하고는 ‘난 120까지 살거야.’라고 생각을 바꾸고, 그 시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만일 제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계속

병원 신세나 지다가 죽었을 겁니다. 마귀란 놈은 다른 건 하지 않고 슬쩍 나쁜 생각만 넣어줍니다. 마귀가 하와의 입을 벌려 강제로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닙니다. 그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라는 생각만 주입했을 뿐인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는 예수님을 팔 생각만 넣었습니다(요13:2). 그 생각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그를 건지고자 계속 던지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은 삼십냥에 판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나는 무자(無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 의 문 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삼상1:6).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도 브르나처럼 자식을 갖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사 한나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것도 세상에 둘도 없는 근사하고 의로운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왕하20:1)고 말합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수 없다.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그 즉시 면벽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를 낫게 하였고, 수한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잘살아야겠다’, ‘나도 좋은 집에 살아야겠다’, ‘나도 능력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건강해서 120세까지 주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면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공상 맞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

각을 합니까? 어느 유행가처럼 ‘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입니까? 저는 싫습니다.

작품은 작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인물화를 그리겠다 하면 인물화가 나오지 풍경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붉은 하늘을 그려야지 했으면 붉은 물감을 사용하지, 파란 물감을 쓰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행을 생각하는데 행복이 올 리 없고, 실패만 그리는데 성공이란 작품이 탄생할 리 없습니다.

생각이 말을 말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 DNA가 있어 닮는 법,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니 그의 자녀된 우리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생각이 존재할 뿐이지요. 그래서 생각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고 바꾸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민14:28).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앞에 바다가 떠하니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한 자들이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네 명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을 때 ‘다음에 하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지분을 뚫은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 인생은 내 생각과 말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 편협한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예수님처럼 넓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꿉시다.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일부러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리더(Leader)의 품격

리더(Leader)란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강인함과 화려함에 매료되기 쉽지만,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이사아서 42장 1~4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성품을 통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진정한 리더는 큰소리치고, 군림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을 섬기기 위한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겸손은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의 표상입니다. 겸손한 리더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쌓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니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지를 않습니다. 배우지 못하니 성장이나 발전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이

들을 포용하는 사랑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악육강식의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흘러가지만,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와 소외된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혼자자 아니며 두려움 없이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는 정도를 걸어갑니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어디를 가든지 떼땃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포장된 인기와 일시적인 성과보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정직과 신뢰가 진정한 품격을 갖춘 리더를 만듭니다.

진정한 리더의 품격은 세상 앞에 당당하면 서도 겸손을 잃지 않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리더야말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 성경에세이 ::

욕심을 유산시켜라

여보게!

욕심이 잉태되면 바로 유산시키게나.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는 곧 사망을 낳기 때문이야(약1:14~15).

욕심이 뭐가? 욕심에 대한 정의는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 중에 잘 나타나 있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삼하12:7~8).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더’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지.

욕심을 잉태한 자들이 정말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렀는지 볼까? 다윗은 처첩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남의 아내를 탐하다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네.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잉태하더니 예수님을 은 삼십냥에 팔아버리고, 죄책감을 못 이겨 결국 자살했고, 아간은 물건을 탐내다가 결국 가족과 함께 멸망했지. 사울도 명예욕이 잉태되어 죄를 낳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 “부

려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6:9~10). 어디 돈 욕심뿐이라, 정욕, 명예욕...

여보게!

오래전에 일본 집회를 갔다가 백화점에 들렀네. 그때 영상카메라며 오디오 제품들이 전시된 전자코너를 둘러보는데, 우리 땅끝 예수전도단 회원이 내게 ‘뭘든 사드릴 테니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나는 지금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달라는 것은 욕심이야.”

그럼 욕심을 유산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6:6).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욕심은 아예 자리하지 못하고, 혹여 잉태되었다가도 유산되고 말거든.

욕심을 버리게. 그것이 살길이야. **봉우**

깨어짐의 학교

“하나님에게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규모가 작고, 입학생도 적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이유는 깨어진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깨어짐의 학교에는 그렇게 학생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학교에 입학한 모든 이들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원 과제 도서로 읽은 ‘세 왕 이야기’ 중에서 ‘깨어짐의 학교’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자아를 깨뜨리시기에 깨어짐의 학교에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선택하신 자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며 교만은 버리고 겸손과 순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적 수업이 있는 곳, 이 학교를 다윗은 통과했고, 마침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다. “나는 그분의 능력

이 아닌 그분의 뜻을 구한다네. 지도자의 자리보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뤄지기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 증거다.

흔히 우리 인생이 광야 길과 같아서 광야 학교라고도 부르는데 책을 읽는 동안 깨어짐의 학교가 광야와 똑 닮았다고 생각했다. 두 장소 모두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야의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곧 (말씀을) 듣는다는 뜻인가 보다.

우리는 “주님, 저의 무엇을 깨뜨려야 할까요?” 주님의 뜻을 묻고 들어야 한다. 이것이 깨어짐의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방법이며, 나의 깨어진 심령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이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성경은 인생의 정보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문을 읽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설교(강의)를 듣는다. 그런데 정작 인생과 영원에 관한 정보는 관심 밖에 두곤 한다. 성경은 바로 그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단지 종교인의 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인생의 설계도다. 삶의 원칙이 담겨 있고, 죽음 이후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권면서가 아니라, 지금과 영원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정보 제공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정보가 시편 1편에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한 복의 공식이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으며(히9:2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

한다. 이것은 내생의 정보다.

또한 성경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약속을 지켜라’ 하는 금과옥조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세상도 신용을 잃은 자를 외면하듯, 하나님도 약속을 현실팽처럼 버리는 자를 외면하신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약점을 파악해 승리했다. 하나님은 이렇듯 언제나 정보를 통해 길을 여신다. 믿음은 무작정 눈 감고 걷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이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성경은 꼭 붙들어야 할 정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방향을 얻고, 기준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 정보는 시시각각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정보를 아는 자가 시대를 이끌듯, 말씀을 아는 자가 전대미문의 복을 받는다.

임택함 목사

:: 성도간증 ::

:: 참된 깨달음 ::

내가 만난 하나님



일곱 살. 봉고차 창문 너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시각 장애 1급,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 제가 도착하게 된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방학을 맞아 어머니와 예루살렘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강단의 목사님의 말씀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될 것입니다.” 1년, 2년 . . . 8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방언기도와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 “하나님, 핍박을 견디고 참았던 결과가 이겁니까?” 저는 가출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2시간 넘는 거리를 매일 찾아와 역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제 엄마랑 같이 살아.”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아버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자퇴생, 검정고시 졸업, 딱히 취업도 하지 않고 어머니께 도움이 되지 않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선택하지 않고 새아버지를 선택한 어머니, 그리고 저를 여태 방치한 아버지. 제 굶았던 상처의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만나 물었습니다. “저를 여태 어떻게 보고 살아오

셨습니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널 낙태할 생각이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스물세 살,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몽둥이로 두드려맞을 때도, 밤새 벌을 받을 때도 제겐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밤새 “난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그 뒤,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봉천기도처로 향했습니다. 지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저의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기도처에 9시간 앉아 기도해도, 매일 찾아가 기도해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있는 목사님들 기도만 들으시고, 내 기도는 왜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시는 이시대 목사님을 붙잡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이시대 목사님은 3년간의 기한을 잡자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책을 읽어보고, 그때에도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그때 기도해주마.” 1년 동안 책을 일주일에 두권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제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 후 집에 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면 지금 당장 우산을 주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곡신에 전도사님이 우산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방을 메는데 가방이 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가방이 필요한데요.” 그러자 다음 날, 곡신에 전도사님이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가방을 사주라고 하신다.”하며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수요저녁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배에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체육관의 문 손잡이를 비틀고 한 발자국 발을 내미는 순간, 총회장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

다. “자살하지 마! 자살하면 지옥이야.” 그렇습니다. 말하지 못했지만 간절하게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가슴을 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소명의 약속 1.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한다. 2. 아버지께서 훈계해도 받아들인다. 3. 아버지가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아버지의 약속 1. 아버지는 소명이에게 다 른 평범한 부모님들처럼 누리던 것을 보장한다. 2. 아버지는 소명이가 자고 씻고 누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주신다. 3. 아버지는 소명이에게 학원이나 대학교 등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4. 올바른 훈계와 올바른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집을 주시고, 항상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대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읽은 지 1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7번이나 주의 종이 되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 아니라 열등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체념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누군가 깨우지 않으면 삼사일도 그냥 자는 병입니다. 게을러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병이라고 누군가 말해줬습니다. 난민 아이들이 눈을 뜨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계속 잠을 자는 것처럼, 저도 세상을 외면하고 잠을 자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학년, 저는 반드시 주의 종이 되라고 매일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된다.”, “나는 성경 한 권을 꿰뚫는 종이 된다.”, “나는 깨닫힌 종이 된다.” 아직 부족하지만, 제겐 꿈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었던 청년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소명 생도

질문을 대하는 태도

지난 총회장 목사님의 목회성장학 특강이 있었다. 특강 이후 질문이 있는지 물으셨다.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중 내 귀에 살짝 거슬리는 질문이 있었다. ‘이 상황에 저런 질문을 꼭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던 잘나 총회장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다. 오히려 질문을 더 돋보이게 하시고 더 의미 있게 만드셨다. 순간 부끄러웠다. 나의 교만함과 헤아림을 꼭 들킨 것만 같았다. 총회장 목사님은 질문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으셨다. 어수선했던 말투와 정리되지 않는 질문이어도 웃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경청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따뜻함과 사랑이 전달된다. 총회장 목사님은 질문의 내용보다 질문자의 생각과 감정까지 배려하시며 답변하셨던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다. 성실한 응답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의 신뢰로 연계된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자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이 중요한 만큼 답변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고 간결하고 쉽게 답변해줘야 한다. 예수님도 답변하실 때 궁금증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생각과 마음, 더 나아가 영혼까지 살피시고 깨닫게 하셨다. 때로는 질문자의 위선과 외식을 꿰뚫어 보시고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때로는 재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어려운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와 이야기를 활용하여 깨닫게 하셨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총회장 목사님처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 질문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사랑으로 인내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져본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15:23).

양은정 생도

벤세메스로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어린 송이저 울어대도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인발자국 두발자국
고갯미루 땀방울
핏방울로 변이는길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봉우 이조석 목사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어린 송이저 울어대도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저녁노을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이저 울어대도
기림나더 벤세메스로

오 내주어 오 내주어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기신 가야할길
이길만은 가야할길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533. 9191